현충시설 통도사, 제1회 호국영령 위령재 봉행

6월 18일 오전 11시 금강계단 마당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2021년 현충 시설 지정 후에 첫 행사
용화전서 1000불 미륵옥불 점안식도
6 · 25한국전쟁 당시 '제31 육군병원'
6월 5일, 보훈의달 기념 작은음악회
호국불교 의미새기고 국태민안 기원


통도사 용화전 1000 미륵옥불 모습.

지난해 11월 현충시설로 지정된 통도사(주지 현문)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시설 지정 후 처음으로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위령재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6 · 25 한국전쟁 기념일을 앞둔 6월 18일 오전 9시 용화전에서 1000 미륵옥불 점안식 후 11시에 금강계단 앞 마당에서 위령재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지난해 통도사가 6 · 25 한국전쟁 당시 제31 육군병원이었다는 사료와 증언이 나온 후 지정 요청을 거쳐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통도사는 2019년 9월 용화전 미륵불소조좌상의 복장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통도사가 육군병원이었다는 사실이 담긴 연기문(용화전 미륵존불 更 조성연기)을 발견했다. 구하 스님(1872~1965)이 쓴 연기문에는 "경인년 6월 25일 사변 후 국군 상이병 3000여 명이 입사해 불기 2979 임진년 4월 12일 퇴거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통도사는 이후 현충시설 지정을 위해 한국전쟁 당시 입원했던 생존자의 증언을 청취하고 기록한 객관적 자료를 취합해 현충시설 지정을 요청했고, 2021년 11월 1일 현충시설로 지정됐다. 지정서의 정식 명칭은 '제31육군병원 통도사 분원으로 쓰인 곳-통도사'이며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로 명기했다. 지정서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제1항에 따라 현충시설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현충시설 관리번호는 '42-2-22'이다.

통도사는 현충시설 지정 요청과 함께 호국영령을 위한 불사를 기획했다. 용화전을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장소로 기념하고, 통도사를 찾는 불자들에게 호국불교 도량으로 활동한 통도사의 역사를 알리는 의미를 담아 1000 미륵옥불 조성불사를 이어왔다.

통도사는 "참전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미륵옥불'을 조성해 용화전에 봉안한다"며 "이 시대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불사이며 국태민안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공식 후원하는 위령재에는 6 · 25 한국전쟁 참전 희생자와 유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통도사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5일 오후 1시 30분 무풍한송로 송수정 앞 무대에서 '국가현충시설(31 육군야전병원) 통도사에서 열리는 숲속 작은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크로스오버팀 뮤타타 등이 출연한다.

통도사는 "한국전쟁뿐 아니라 통도사는 국난을 겪을 때마다 동체대비 정신으로 국민의 안식처로 활동하며 국가 호국 성지로 역할을 이어왔다"며 "이번 행사를 맞아 호국불교 정신의 의미를 전달하고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자리로 회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천 우리는선우, 석구 스님 수행록 봉정식

수행록 〈기도밖에는 모릅니다〉 봉정
제천 우리는선우 창립 30주년 기념



재가불자 모임 제천 우리는선우(지회장 김연호)가 5월 22일 명성 유유예식장 2층에서 책 〈기도밖에는 모릅니다〉 봉정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천 우리는선우 창립 30주년을 맞아 진행됐으며 지도 법사로 함께해준 석구 스님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책은 석구 스님의 50년 수행 이야기를 구술로 풀어낸 것을 정리해 엮은 것이며, 책 판매 수익금은 제천 우리는선우 청춘 불자회 활동에 기부한다.

봉정식에는 석구 스님을 비롯해 김연호 회장과 전국 우리는선우 회원 및 불자 200여 명이 동참했으며 책 봉정 이후 김연호 회장과 구완회 교수가 책에 담긴 의미를 전달하는 인사말 순서가 이어졌다. 내빈들의 축사 이후 석구 스님의 법문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김연호 지회장은 "스님의 50년 수행 과정 모두를 담기에는 한없이 부족함이 느껴진다"며 "스님의 수행집을 남기고자 한다는 소식에 전국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십시일반 후원해 오늘 이 자리도 가능했다. 진심으로 감사하며 모두의 마음을 담아 스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구 스님은 "바람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라 생각해왔는데 회장님과 회원들의 부탁에 이렇게 수행집이 나오게 되었다. 부끄러운 마음도 생기지만 인연이라 여긴다"며 "그동안 많은 분의 시주와 관심으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다. 받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생이라도 더욱 열심히 지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이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석구 스님은 1950년 2월 6일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성산 마을에서 출생했다. 1969년 9월 8일 법주사로 출가해 혜정 스님을 은사로 계를 받고 강원에서 수학했다. 현재 제천 자은사 주지이며 우리는선우 지도법사, 제천과 단양 파라미타학생회 지도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제천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과 제천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등 불교 포교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제천 우리는선우는 1992년 4월 25일 창립됐다. 재가 불자들의 결집과 수행을 위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창립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미소원 청년회, 아동청소년 차상위 가구 후원



사단법인 미소원 청년회(회장 이명은)가 5월 21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행복가득키트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식에서 미소원 청년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선정한 아동청소년 차상위 계층 20가구에 비타민과 간식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이명은 미소원 청년회를 비롯한 회원들과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장 등 관계자들이 동참했으며, 전달식 이후 청년회 회원들은 직접 후원 가정을 방문해 행복선물 키트를 전달하며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행복선물키트는 지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청년들이 봉축등을 권선하며 모은 십시일반 후원금으로 마련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김해 흥부암, '소소(小少) 산사음악회' 개최



김해 임호산 흥부암(주지 범종)이 5월 21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1회 소소(小少)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지역민에게 힐링과 쉼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범어사 다도 문화에 담긴 불교문화의 정수를 소개하는 마하다도회 만다라 시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국악과 성악곡 등 다채로운 음악 장르의 향연이 이어졌다. 김해시립가야금연주단이 '도라지', '달이 뜨면 만나자', '옛사랑' 등을 가야금으로 연주했고 강태길 바리톤과 강민경 소프라노의 무대는 품격 있는 음악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마지막으로 혼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제니스가 '탑 오브 더 월드(Top of the world)', '벚꽃엔딩', '바람이 불어오는 곳' 등을 불러 대중을 즐겁게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인터뷰

성림 스님(부산영산재보유단체장)

"불교범패 타종교인 심사는 이해 안가"

부산무형문화재 영산재 심사과정 비판
한국 3대성악곡 범패, 세부장르 제외도



부산영산재보유단체장 성림 스님〈사진〉이 지난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 과정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성림 스님은 지난 5월 24일 부산 관음사에서 개최한 부산영산재 공개행사에 참석해 "지난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에서 무속을 연구한 사람과 타 종교인들로 평가단이 구성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며 "범패는 한국무형문화재로서 역사를 면면히 이어가는 전통문화이자 불교 의례를 장엄하는 역사의 산물이다. 문화재 가치를 모르는 부실 행정으로 문화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유자 심사를 받을 당시 무용 전공자와 타종교인 그리고 무속 연구자 등 6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있었다. 무형의 전통맥이 구전심수로 면면히 이어지는 영산재 심사는 불교전문가가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부산 영산재는 불교종합예술 의식의례로 나비, 바라, 작법, 장엄 네 분야가 필수이다. 현재 부산 영산재는 작법 분야만 보유자로 지정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성림 스님은 "부산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심사단이 영산재에 대한 기본 정보가 정확하게 있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영산재가 제대로 보전되려면 작법 뿐 아니라 장엄과 나비, 바라 등 나머지 세 부분에 대한 심사가 이뤄져 보유자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스님은 영산재의 가치에 알맞는 지원도 강조했다. 스님은 "범패는 한국의 3대 성악곡으로 한국 전통과 불교의 정신을 면면히 이어온 분야이지만 전통민속 세부 장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상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무형문화재의 발전을 위해 전수관 개설도 시급하다. 현재의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어 등한시 되어 왔던 범패의 가치를 새롭게 세울 때"라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人生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 답이 法華經에 있다!
NAVER 법화경전문강설 검색 하세요.
킹스대학교 前명예총장 崔光永研究室